

지역 소기업·소상공 절반 이상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300개사 조사

경영 상황 59% ‘악화’...이유 내수 부진 72%
자금사정 나쁨 51%로 ‘체감 경기’ 최악 수준

올해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작년보다 더 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에 대해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0.0%가 ‘악화’(매우 악화 21.0% + 다소 악화 38.0%)였다고 답했다. 반면 ‘호전’됐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경영 상황 악화의 주된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 71.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판로 개척 및 매출 부진(36.2%), 물가 상승,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20.3%)이 뒤를 이었다.

현재 자금 사정이 나빠(매우 나빠 16.7% + 다소 나빠 34.0%)이라는 응답도 50.7%를 차지,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임을 시사했다.

자금 조달 방안은 금융권 대출(1.2금융권)이 3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 활용(23.7%)순이었다.

자금 조달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응

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출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을 겪어 54.3%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대출 조건 충족이 어려움(29.0%),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6.7%) 등 정책자금 이용 관련 애로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자체 지원 소상공인 정책 이용 여부에 대해 ‘이용한 적 있다’(52.3%)가 ‘이용한 적 없다’(47.7%)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용한 적 없는 주된 이유는 정보 접근성 부족 44.8%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책 실효성 부족(32.9%), 신청 요건 절차의 진입 장벽(25.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책 홍보 및 제도 정비, 절차 간소화의 필요함을 보여줬다.

소상공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 지원 분야로는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촉진 3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 및 대출 지원 강화(33.7%)가 뒤를 이어 두 정책이 전체 응답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정책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지원 형태로는 직접 자금 지원(정책자금 대출,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지자체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바람이 금융 지원 확대에 나타났다.

조동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역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터널과 내수 한파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섬세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태호 기자



휘발유 1천700원대 돌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8.4원 오른 1천703.9원이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광주은행-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맞손’

피해 의심 계좌 모니터링 등 업무협약
금융·수사기관 공조 지역민 자산 보호

광주은행은 지난 14일 광주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기적 상담회 개최, 피해 의심 계좌 모니터링 및 112 신고 협조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 발굴 및 시범운영, 합동 홍보·교육 캠페인 전개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기관을 악용한 대포통장 유통과 해외 조직 연계 범죄가 잇따르며 지역민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점 창구직원 대상 대응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노력을 통해 광주은행은 2023년 28억원, 2024년 39억원, 올해 10월 말 기준 42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 광주은행 송정지점에서는 직원의 예리한 판단력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리모델링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상담 과정에서 이상 정황을 감지한 직원이 즉시 전담 부서와 경찰에 연락했고, 현장 출동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의 검찰 및 수사기

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출 인출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광주은행 직원의 빠른 기지와 세심한 대응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실행 예정이던 대출금 및 고객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 등 총 2억 5천100만 원을 지켜내며 올해 단일건으로 최대 피해액 예방 실적을 기록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형 범죄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광주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신뢰받는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최후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며 “광주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최갑렬 회장 “주거복지 문제 등 현안 해결 역점 추진”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이·취임식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14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대 정기집회장 이임식과 제12대 최갑렬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취임한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신임회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최 회장은 BBS광주불교방송사장,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이사장, 파라뷰미술관 이사장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갑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주거복지 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가치실현 방안 모색, 사회공헌활동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일차



리 창출 기여, 회원사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기동안 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지역주택건설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모두 풍부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 장서는 날 ◎
매주 토요일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장흥군 Jangheung-gun

후원 : 장흥군 Jangheung-gun

광고문의 : 062)650-2099